

4월 3주차 Q&A — 25조 추경에 따른 부동산 / 증시 영향

· 정리 2026-05-22

4월 3주차 Q&A — 25조 추경에 따른 부동산 / 증시 영향

Part 4-1강(2026-04-16) 부채 J커브 직후 Q&A. 두 가지 질문: - **Q1 (공부하는 돌고래님)** — 25조 추경이 부동산 다시 자극할까? 주식 상승 동력? - **Q2 (간식먹는 펭귄님)** — K자 경제에서 정부 미는 산업군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보다 유망?

Q1. 25조 추경 — 달콤한 유혹과 1년 뒤 청구서

자산별 반응 속도

자산	반응	메커니즘
주식	즉각	추경 기대 보름 + 실제 살포 후 보름 (사람들이 소비보다 주식 매수)
부동산	3~6개월 간접 지지	25조로는 추세 못 만들. DSR 강화 + 가계부채 압박
물가	12~18개월 (프리드먼)	최근 정보 전달 빨라져 9~12개월로 단축

상승 동력이라 하면 지속 상승이지만 추경은 **원타임 효과** — 한 달짜리. 펀더멘털 개선 아닌 유동성. 착각 금지.

영국 vs 한국 — 왜 한국 추경은 아직 작동하나

항목	영국 리즈 트러스 2022	한국 2026
정책	재원 없이 감세 + 지출 증액	초과세수 + 국채 발행 無
GDP 대비 부채	105%	50%
결과	채권시장 반란 + 파운드 폭락 + 45일 만에 사퇴	덜컹

영국이 무능해서가 아님 — **베이비부머 차이**. 한국 베이비부머는 1954~1974년생, 가장 어린 사람이 52세 (세금 뽕뽕 납부). 영국은 1946~1964년생, 가장 어린 사람이 62세 — 거의 다 은퇴. **세금 안 내고 복지 받는 고령층 ↑ → 국가 부채 폭증**.

2~3년 뒤 한국도 J커브 작동

Part 4-1강의 J커브가 한국에도 2026~2027년부터 본격 진입 예고. **그때부터 추경 시 주가 하락**. 지금은 한국이 **재정 지배 단계가 아니라** 추경이 먹히는 시기.

- 2~3년 동안: 추경 = 증시 희소식 (희소식 ON, 매크로 호재) - 2~3년 뒤: 추경 = 증시 악재 (J커브 진입)

케인스 vs 프리드먼

- **케인스**: 재정 확대 → 총수요 즉각 증가 (단기 처방) - **프리드먼**: 12~18개월 시차로 물가 억습 (Long and variable lags)

추경의 한계 = **인플레이션 2파**: - **1파 (현재)** — 중동 전쟁 유가 급등, 공급 충격 - **2파 (1년 뒤)** — 추경 + 금리 인하, 수요 충격

2026 하반기 = 1파 + 2파 만나는 구간 → 쌍봉 인플레이션 위험. 한국은행이 추경 풀린 만큼 돈을 흡수해야 2파 완화. 신현승 총재 정책 방향이 핵심.

Q2. K자 경제 —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유망한가?

K자 시대 산업 격차 확실. 정부 정책 밀어주기로 액티브 펀드(코스닥 액티브 등) 출시 줄지음. 그러나 강사 결론은 **여전히 패시브가 정답**.

패시브 36년 수익률 — 원화 환산 연평균 (배당 재투자)

지수	수익률
S&P 500	13~14%
KOSPI	7~8%
미국 국채 10년물	7~8%
닛케이 225	4~5%

한국 주식 = 미국 국채. 적극 가정(배당 재투자) 다 넣어도 36년간 미국 국채와 동일. 미국만이 지속 우상향 — 다른 모든 나라는 자본 유출이 너무 크다.

한국 코스피 = 계단식

기간	형태
1988~89	계단 + 급등
1990~04 (15년)	박스피
2005~07	계단 + 급등
2008~23 (13년)	박스피
2024~26	계단 + 급등

측정 시점이 수익률을 결정: - 2024년 말 기준 16년 수익률: **연 4~5%** (미국 국채의 3분의 2) - 2026-04 기준 16년 수익률: **연 10~11%**

한국 = **2~3년 보유 후 매도**가 정답. 안 팔면 박스피 10~15년. "이번엔 다르다"는 매번 상승장마다 나왔으나 항상 틀림. 워런 버핏 같은 장기 투자 거장이 한국에 없는 이유 — 박스피 12~15년을 견딜 인간이 없다.

액티브 vs 패시브 — 10년 이상 패시브 이긴 비율 (SPIVA)

국가	액티브가 이긴 비율
미국	8~15%
유럽	~10%
일본	~18%

최대 18%, 미국은 10명 중 1명만 패시브 이김. 그 10%를 사전에 골라낼 방법 없음.

드러켄밀러는 30년간 손실 0 — 그러나 자기 돈만 굴림 + 거대 기관 돈만 받음. **개인 투자자는 그런 펀드에 못 들어감**.

액티브 3 함정

함정	설명
비용 비대칭	손실 구간에서 수수료가 수익을 더 크게 갉아먹음
모멘텀 역습	상승장에 가장 고평가 자산 집중 투자 → 하락 시 낙폭 극대화
생존자 편향	망한 펀드는 통계에서 제외, 수익률 통계 과장

ARK (돈나무 언니) 사례 — 상승장에 시장보다 2~3배 수익률 → 박살날 때 훨씬 더 박살. 액티브는 **모멘텀 단기 (2~3년)**에만 의미.

K자 시대 — 강사 권고

자산군	역할	기간
미국 S&P 500 / 나스닥 100	장기 패시브 코어	36년 데이터 검증
한국 K자 상단 ETF	중기 전술 자산	2~3년 타이밍 (계단 오를 때 타고 치솟으면 비중 축소)
액티브 펀드	원칙적 배제	모멘텀 단기만 가능
금 (글로벌 자산)	핵심 코어	나라 영향 X
나스닥 (준글로벌)	보조 코어	옛날만큼 완전 글로벌은 아님

미국이 7~8년마다 30% 빠지므로 **분할 매수 적립식 + 비명 시 목돈 전략** 유지. 한국이 25년처럼 영원히 미국 상승률 능가하는 불가능 — 일본도 80% 반도체 점유했지만 미국 상승률의 3분의 1만 따라옴.

투자의 코어는 미국 중심 + 글로벌 자산. 한 나라의 정치·경제·규제 영향 받는 자산보다 글로벌 자산(금) 중심.

마무리 — Part 4 본격 진입 예고

본 회차로 한국 추경의 단기 호재 + 장기 청구서 시각 + 패시브·액티브 K자 시대 가이드를 정리. 다음 Part 4 회차에서 **한국에서 부채 J커브가 본격 작동하는 시점** 정밀 진단 예고.

ONE LINE

한국은 2~3년 동안 추경이 희소식이지만 그 뒤로는 J커브가 작동한다. 투자의 코어는 여전히 미국 중심에 글로벌 자산(금)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 — 한 나라의 정치·경제 영향 받지 않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자산.

출처

박종훈의 지식한방 — Q&A 4월 3주차 (2026-04-20, parent: Part 4-1강).